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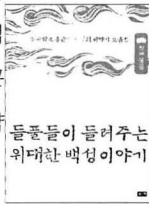
#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 12월호 후보도서

### 《위싱턴 퍼즐》

김윤재 지음 | 삼우반 | 304쪽 | 값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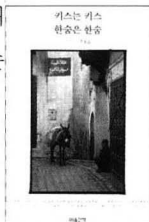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한국인 정치 컨설턴트인 저자가 한반도의 관점에서 미 행정부의 작동방식을 소개하고 설명한 안내서. 저자는 백악관과 의회의 역사적, 제도적인 대립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네오콘들의 논리와 행동 방식, 정치 컨설턴트들의 홍보, 선거전략 등 세계 정치의 중심 위싱턴을 조망하고 있다.



### 《들풀들이 들려주는 위대한 백성 이야기 1, 2》

홍순명 지음 | 부키 | 각권 220쪽 내외 | 각권 값 6,800원

〈심청전〉 〈홍부전〉 〈선녀와 나무꾼〉 〈새 홍길동전〉 〈새 춘향전〉 등 전래되어 온 우리 고전을 새롭게 고쳐 썼다. 특히 이 책은 원본에 충실하기보다 큰 뼈대만을 남겨둔 채 시공간을 조금씩 바꾸고, 새로운 소재와 주제로 구성했다. 심청을 통해서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몽룡은 19세기 순조 때로 무대를 옮겨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맡았다.



### 《오늘의 우리이론 어디로 가는가》

교수신문 엮음 | 생각의나무 | 386쪽 | 값 22,000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년간 〈교수신문〉에 연재된 연중학술기획 '우리 이론을 재검토한다'를 책으로 엮었다. 이는 우리 학문의 식민성에 대한 반성이다. 조한혜정·김영민의 '탈식민주의 글쓰기', 장희익의 '온생명' 등 근대학문 100년 동안 자생된 여러 가지 이론과 관점 그리고 그 성과물들 가운데 20개 이론을 확정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 《키스는 키스 한숨은 한숨》

조용호 지음 | 마음산책 | 294쪽 | 값 12,000원

소설가이자 세계일보 문화부 기자인 조용호 씨가 다녀온 중남미·아프리카 문학기행서다. 저자는 그동안 소개된 바 없는 중남미 5개국 8개 지역, 아프리카 3개국 10개 지역의 문학현장의 숨결을 현장감 있는 사진과 함께 담았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파블로 네루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응구기와 시옹오, 나딘 고디머 등의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개발시대와 박정희》

이병천 엮음 | 창비 | 440쪽 | 값 15,000원

박정희는 과연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인물일까? 그동안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동아시아의 기적'과 '민주화를 가로막은 인물'로 엇갈린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의 양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1부에서는 경제개발의 성공요인과 개발체제의 특징을, 2부에서는 개발독재의 그늘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 담론을 분석한다.

### 《신여성》

문목표 외 지음 | 청년사 | 326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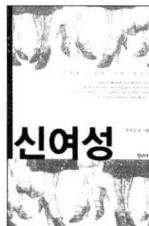
여성에게 근대란 무엇이었으며 무엇이어서 했는가?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과 일본의 이혼 명의 학자가 쓴 이 책은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과 조선 신여성들의 개인적인 삶과 활동, 그들이 처해 있던 사회적·정치적 상황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양국의 독자적인 신여성 운동의 전개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 《이동순 민족서사시 홍범도》(1~10권)

이동순 지음 | 국학자료원 | 각권 170쪽 내외 | 값 각권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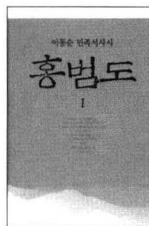
'20여 년의 남몰름 조바심'을 뚫고 한 편의 민족서사시가 세상에 나왔다.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영남대학교 국문학부 이동순(53) 교수가 쓴 이 서사시집은 양으로 보자면 5부작 10권으로 2,000쪽이 넘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왜곡되고 축소된 민중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역사성의 뼈대 위에 문학성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 《도화 아래 잠들다》

김선우 지음 | 창비 | 118쪽 | 값 6,000원

'시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두 번째 시집이다. 이번 김선우의 시집은 그동안 여성시인들이 보여주었던 여성으로서의 절대적인 포용이나 가부장적 억압으로 인한 고통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가볍게 뛰어올라 오히려 여성 고유의 풍부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보여줬다는 점이 기자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 《내 시대의 초상》

이윤기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4쪽 | 값 8,000원

계간지 〈문학과사회〉에 연재됐던 것을 묶은 작품집이다. 호불호를 막아, 굵은 붓글씨로 된 〈천자문〉을 읽으면서 자란 작가는 이제 '컴퓨터와 스캐너'가 즐비한 세상에 살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를 '이상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이 시대를 살았던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 숨가쁘게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다.